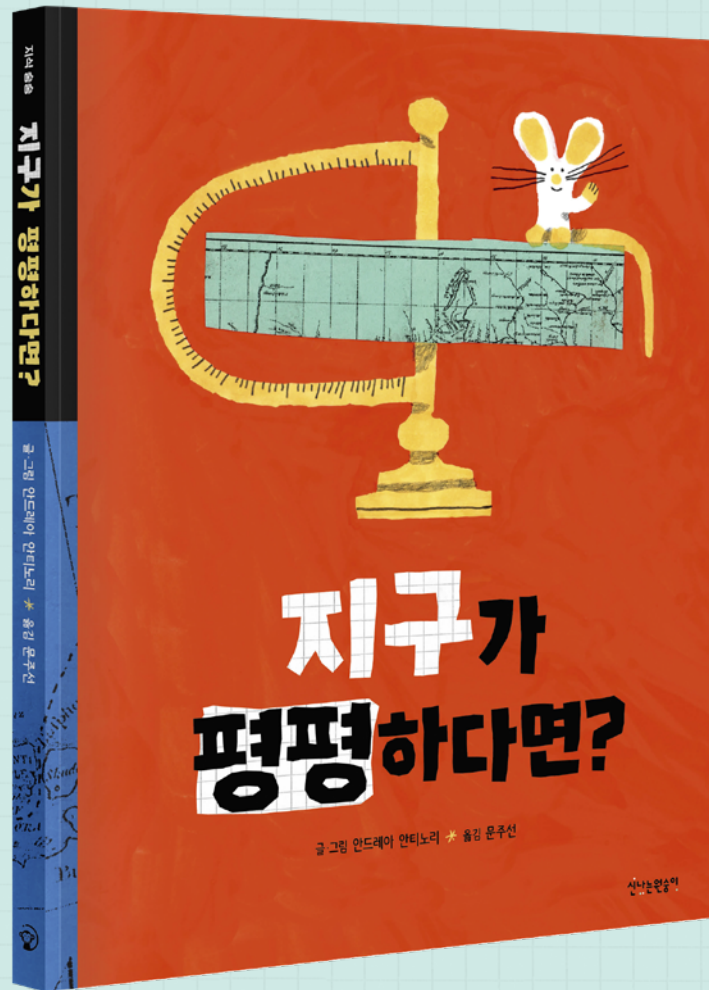




신나는원숭이와 함께하는 신나는 책 읽기!



지구가 평평하다면?

글·그림 안드레아 안티노리 | 옮김 문주선

64쪽 | 값 17,000원 | ISBN 979-11-989121-6-9 73440

초등학교 2022년 개정 교과 연계

- 1학년 1학기 <탐험> 그림책으로 만나는 탐험
- 1학년 2학기 <상상> 그림책에서 만나는 상상
무엇이든 바꿀 수 있다면
- 3학년 2학기 <과학> 2. 지구와 바다
- 4학년 2학기 <과학> 1. 밤하늘 관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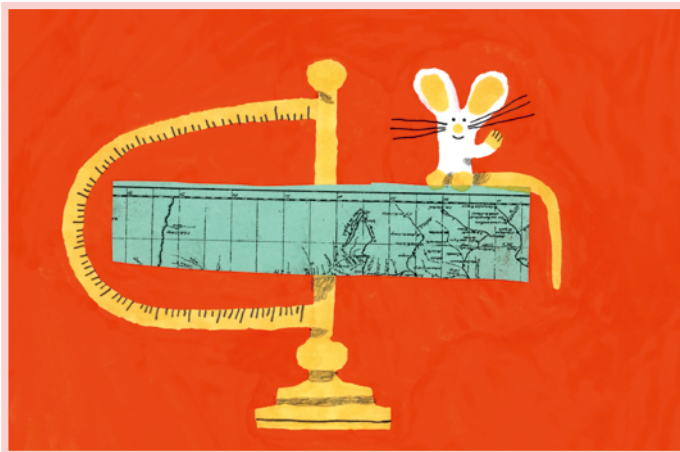
◎ 책을 읽기 전에 다음 주제어에 관해 생각해 보세요.

지구, 자전, 기울기, 생물, 진화, 달, 육지, 바다, 행성, 세상, 상상, 관찰, 탐구

◎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생각하며 읽어요.

- ★ 책 속에 나오는 방법을 활용해서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직접 확인해 보아요.
- ★ 지구가 평평해진다면 뾰족하게 솟아 있는 산과 깊고 깊은 바다가 어떻게 변할까요?
- ★ 이 그림책에서는 평평해진 지구에서 어떤 놀이나 행동이 곤란해질 거라고 상상했나요?
- ★ 책 속에서 작가가 상상한 이야기 중에서 가장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를 골라 보세요.

◎ 다음과 같은 내용을 생각하며 읽어요.



앞표지에 나오는 그림을 자세히 살펴
보세요. 무엇을 나타낸 그림일까요?
하얀 생쥐는 어디 위에 앉아 있나요?

◎ 앞면지(본문과 표지를 연결하는 페이지)를 살펴보세요.



앞면지에 있는 그림은 무엇을 표현한
걸까요? 책의 제목을 떠올리면서 상
상해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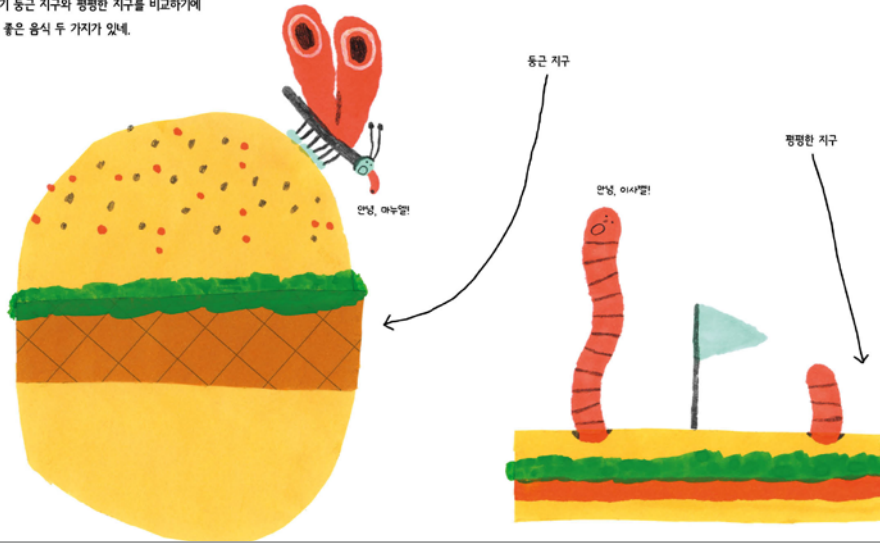
◎ 책의 내용과 다르게 상상해 보고 친구와 이야기 나누어 보세요.

★ 지구의 모양을 나타낼 수 있는 사물을 찾아보세요. 음식이나 채소, 과일도 좋아요!

둥근 지구는 _____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평평한 지구는 _____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여기 둥근 지구와 평평한 지구를 비교하기에
딱 좋은 음식 두 가지가 있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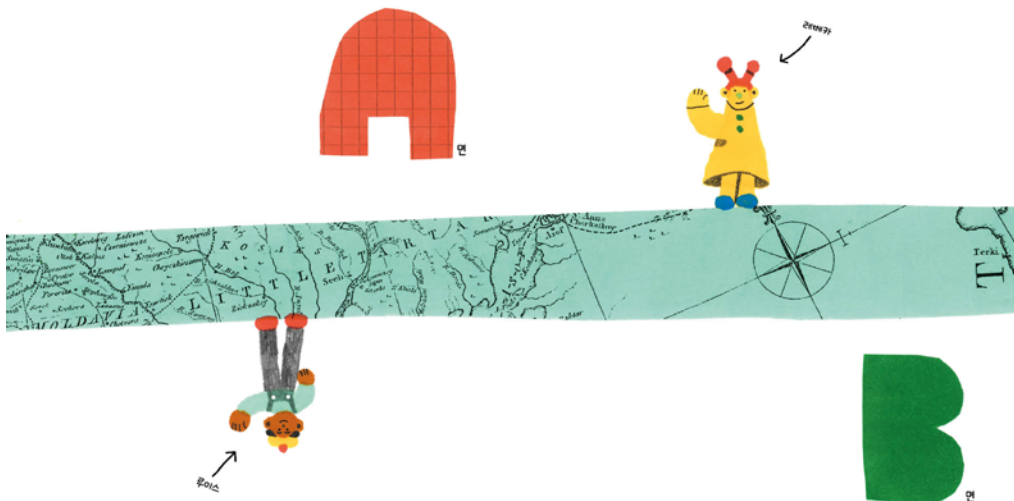


★ 지구가 평평하다면, 지구 반대쪽에 사는 친구와 어떻게 만나면 좋을까요?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하면 가장 빠르게 만날 수 있을까요?

루이스, 이따 _____타고 갈게.

레베카, 그보다 _____이 더 빠를 것 같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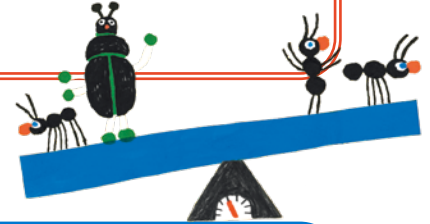
지구에는 딱 두 면만 있을 거야.



◎ 『지구가 평평하다면?』 그림책 속에 나오는 과학·역사·사회 이야기 하나 더!

★ 역사 속에서 지구를 처음으로 한 바퀴 돈 사람은 누구일까요?

아주 먼 옛날 사람들은 땅이 네모 모양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세상 끝은 낭떠러지라고 믿었지요. 하지만 고대 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월식 때 달에 비친 지구의 그림자를 보고 이 세상은 둥글다고 예상했다고 해요. 그걸 직접 최초로 경험한 사람들은 1519년에 커다란 배를 타고 인도로 떠난 탐험가 마젤란과 일행들이었어요. 에스파냐에서 출발해 계속해서 서쪽으로 항해했던 마젤란 일행은 무려 4년 동안 항해를 한 끝에 출발지였던 에스파냐로 돌아왔답니다(물론 마젤란은 돌아오기 전에 세상을 떠났지만요). 이로써 지구가 둥글다는 걸 사람이 직접 경험한 거지요.



★ 자전과 지구의 기울기는 무엇일까요?

지구는 남극과 북극을 이은 축을 중심으로 하루에 한 바퀴씩 스스로 돈답니다. 이러한 현상을 ‘자전’이라고 해요. 지구는 서쪽에서 동쪽으로 돌아요. 이렇게 지구가 스스로 돌기 때문에 낮과 밤이 생기는 거지요. 달과 태양이 뜨고 지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지구가 돌기 때문이에요. 지구의 중심축은 약 23.5도 기울어져 있어요. 이 때문에 계절이 생겨나요. 그래서 이 그림책에서 지구가 도는 방식과 기울기까지 고민해 보자고 이야기한 거예요.

★ 타이태닉호 사건은 어떤 사건일까요?



타이태닉호는 1912년에 2200여 명의 승객과 승무원 들을 태우고 영국에서 미국 뉴욕을 향해 가던 대형 여객선이에요. 하지만 타이태닉호는 북대서양에서 빙산에 부딪혀 침몰하고 말았어요. 이때 배에 타고 있던 많은 사람이 희생되었어요. 이 사고를 계기로 런던에서 최초의 국제 해상 안전 협정이 체결되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사고였기 때문에 작가는 사고의 결과가 바뀌길 바라는 마음을 그림책에 담았어요.

★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은 어떤 사건일까요?

1492년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는 에스파냐의 이사벨 여왕의 지원을 받아 인도로 가는 서쪽 항로를 개척하기로 했어요. 콜럼버스는 지구가 둥글다고 믿고 있었고 계속해서 서쪽으로 가다 보면 인도가 나올 거라고 확신했기 때문이에요. 몇 달을 항해한 끝에 육지에 도달할 수 있었는데, 콜럼버스가 인도라고 믿고 있던 그곳은 바로 아메리카 대륙이었어요. 그때까지 유럽 사람들이 알지 못했던 대륙이었기 때문에 ‘신대륙’이라고 불렀지요. 하지만 그곳에는 콜럼버스가 발견하기 이전에 그들만의 문명을 이루고 사는 사람들이 있었고, 많은 생물이 생태계를 이루고 살고 있었답니다.



- 내가 좋아하는 모양으로 지구가 변했을 때 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마
음껏 상상해 보세요!

내가 상상하는 지구는 ○○○모양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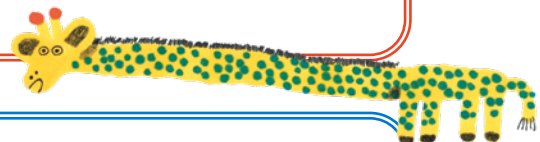
_____의 지구에서는 이런 음식을 먹을 수 있어!

_____의 지구에서는 이런 놀이를 할 수 있어!

_____의 지구에서 이런 활동은 곤란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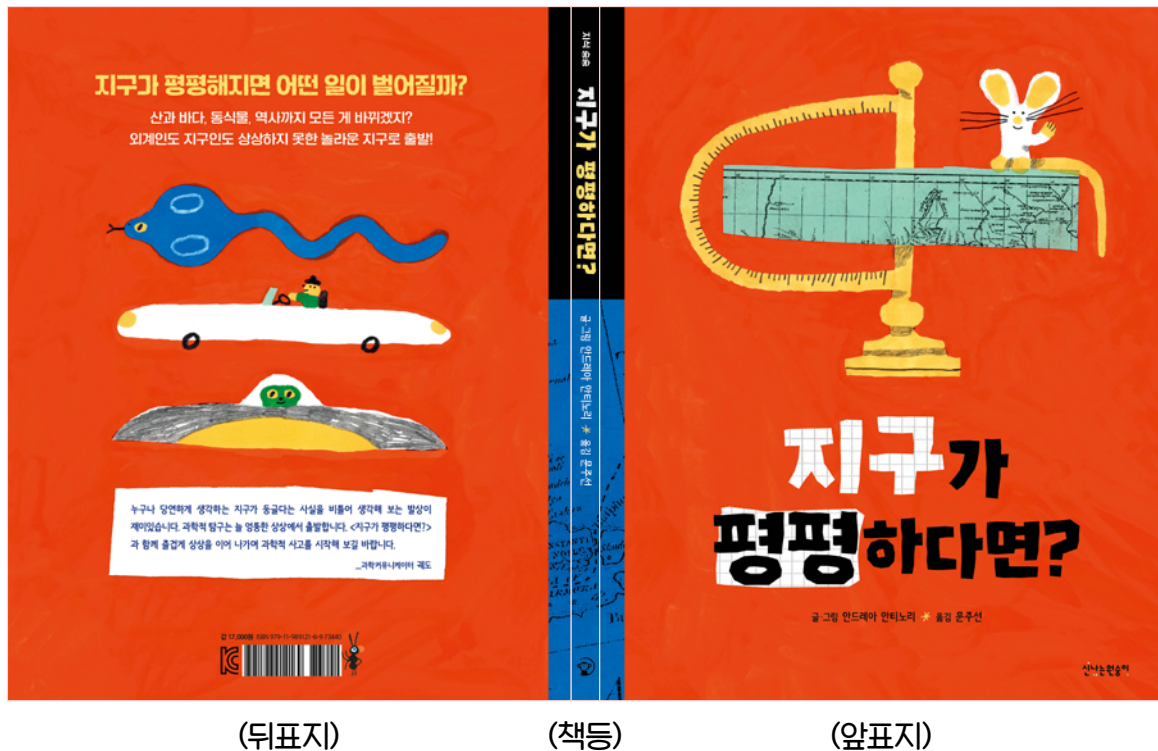


_____의 지구에서는 이런 집에서 살게 될 거야!



_____의 지구에서는 이런 패션이 유행할 거야!

◎ 위에서 상상한 내용을 바탕으로 나만의 책 표지를 만들어 보세요.



(뒤표지)

(책등)

(앞표지)

제목

—— 오리기 ———— 접기

- ★ 내가 살고 싶은 지구 모양을 앞표지에 그려 보세요.
 - ★ 그에 맞는 제목도 지어 보세요. ('지구가 00하다면?' '지구는 00해!' '00 모양의 지구!' 등)
 - ★ 책등에도 제목과 지은이 이름을 넣어 주세요.
 - ★ 뒤표지에는 책을 잘 설명할 수 있는 짧은 문장과 그림이 들어가요. 상상한 지구 모양을 잘 설명할 수 있는 그림은 무엇 일까요?
- 표지와 같은 크기의 종이를 마련해 나만의 지구에서 신나게 노는 그림을 그려 보세요. 종이를 반으로 접어 표지 안쪽에 끼워 넣으면 나만의 책 완성!